

# 헤르만 헤세의 교육관

—학교 교육에 대한 그의 부정적 시각과 교사상을 중심으로—

김 석 도  
(독어독문학과 교수)

## 1.

독일의 현대 작가 가운데서 헤르만 헤세(H. Hesse)는 한스 카로사(H. Carossa)와 함께 그의 고향 이야기와 어린 시절의 체험을 작품에서 가장 많이 다룬 작가로서 정평을 얻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헤세 문학의 모태는 바로 그의 고향 칼프(Calw)와 그 곳에서 보낸 그의 어린 시절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의 작품들 가운데서 고향과 어린 시절을 다룬 것이 소설, 수필 등 무려 40여편에 달하고 있는 사실만 보아도 그가 얼마나 이 소재에 집착했던 가를 알 수 있다. 그는 육순을 넘기고도 반세기 전 그의 꿈의 요람이었던 고향의 산천과 풍물들을 그의 기억 속에 떠올리며 그 곳에서 지냈던 유소년시대의, 특히 학창시절의 갖가지 체험들을 즐겨 그의 작품 속에서 형상화했다. 그러면서 그는 “마치 수목이 뿌리와 생명으로써 자신의 토지에 연결되어 있듯이”<sup>1)</sup> 자신도 고향 땅과 그곳에 얽혀있는 갖가지 사연에 결부되어 있다는 사실을 하나의 불가사의한 감동으로 느꼈고 또 그곳에서 얻은 영상이나 체험들은 그의 인간 형성과 세계상 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회고했다.<sup>2)</sup> 그러나 고향의 아름다운 자연을 배경으로 한 그의 소년시대의 이야기들은 거의 다 8살 때부터 14살 때까지의, 그러니까 라틴어학교 시절부터 마울브론 신학교, 김나지움을 거쳐 잠시 견습직공으로서 공장에 다닐 때까지의 5년간의 짧은 기간의 체험을 다룬 것들이다.

그러나 이 5년간은 그의 생애에서 가장 쓰라리고 파란만장던 수난의 시절로서 시인으로서의 그의 삶의 행로에 많은 영향을 미쳤던 매우 중요한 시기였다. 그런데, 이 시기의 그의 체험들을 형상화한 그의 작품들, 예를 들면 「나의 소년시대」(Meine Kindheit), 「어린 아이의 마음」(Kinderseele), 「중단된 수업」(Unterbrochene Schulstunde), 「데미안」(Demian), 「수레바퀴 밑에서」(Unterm Rad), 「나의 학생시절에서」(Aus meiner Schülerzeit), 「한스에 대한 추억」(Erinnerung an Hans) 등을 읽어 보면 이들 작품들 속에서 뚜렷한 두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그 하나는 과거를, 특히 그의 학창시절을 회고할 때의 그의 필치에

\* 이 논문은 1986년도 문교부 학술연구 조성비에 의해 작성된 것임.

1) B. Zeller: Hermann Hesse S. 18 (제인용).

2) ebd. S.18. 참조.

서 느낄 수 있는 깊은 회한의 감정이고, 다른 또 하나는 불우했던 그의 학창시내에 그에게 돌아킬 수 없는 깊은 상처를 안겨준 여러가지 외적 요소들, 이를테면 그 당시의 잘못된 교육제도나 방법, 그리고 학교, 교사, 학부모들의 비교육적인 행태 등에 대한 신랄한 비판과 적대적 감정이다.

그의 이런 특징이 가장 잘 나타난 작품이 바로 「수레바퀴 밑에서」(1906)이다. 이 소설은 발표 당시 독일 교육계에 큰 파문을 던졌던 문제의 교육소설이다.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반에 걸쳐 독일에서는 아주 이례적으로 학생을 주인공으로 한 비극적인 청춘소설들이 많이 발표되었다. 프랑크 베데킨트(F. Wedekind)의 「봄의 각성」(Frühlingserwachen/1891)을 위시하여 에밀 슈트라우스(E. Strauß)의 「친구 하인」(Freund Hein/1905), 하인리히 만(H. Mann)의 「운라트 교수」(Professor Unrat/1905), 로버트 무질(R. Musil)의 「생도 퇴어레스의 혼란」(Die Verwirrungen des Zöglings Törleß/1906), 프리드리히 후흐(F. Huch)의 「마오」(Mao/1906) 등이 연달아 발표되었고 헤세의 「수레바퀴 밑에서」도 바로 이 무렵에 출간되었다. 독일 교육소설의 전형으로서 평가되고 있는 이들 작품들이 이 시기에 대거 발표된 것은 아무래도 당시의 정치적 상황이나 교육풍토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빌헬름 2세(Wilhelm II.)의 통치 하에 있던 당시의 독일은 제국주의적이며 민족주의적인 기풍이 고조되면서 학교는 병영처럼 엄격한 통제와 규율하에 들어 갔다. 그러자 이런 군대식의 통제에 의한 획일화 교육은 인간의 개성을 말살하고 정신을 황폐화시킨다는 우려가 높아 갔다. 그래서 이런 교육 정책에 대한 비판이 거세게 일어나면서 몇몇 작가들이 잘못된 교육 체제에 대해 정면으로 반기를 들었다.<sup>3)</sup> 이렇게 문학이 교육문제를 해결의 중요 목표로 설정할 정도로 당시의 교육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던 것이다. 사춘기의 성의 문제를 처음으로 과감하게 사회문제로 제기했던 베데킨트의 「봄의 각성」이나 무질의 「생도 퇴어레스의 혼란」은 성인들이나 학교가 사춘기의 소년, 소녀들의 성적 충동을 무조건 금기하여 죄악시하면서 엄격한 규율과 엄벌주의로 억누르고 있는 교육적, 사회적 현실을 비판하면서 당시의 파행적인 교육, 위선적인 시민도덕을 통렬히 비난했다. 더구나 무질의 작품은 소년들의 동성애와 사디스트적인 성애 등을 거침없이 묘사하여 당시로서는 거의 경악에 가까운 충격을 주었다. 베데킨트의 작품은 교사들을 모두 희화화하여 웃음거리로 만들므로써 당시의 잘못된 교육의 일익을 담당했던 교사들을 준렬히 꾸짖고 있다. 당시의 교사들의 위압적이고 독선적인 행동은 만의 「운라트 교수」에서도 풍자적으로 비판받고 있다. 만은 이 작품에서 음험하고 편협하고 고루하며 오만불손한 한 고등학교 교사가 선생이라는 이름 하에 존경받고 있는 현실을 풍자하면서 그가 한 시민으로서 보여 주고 있는 양면적인 도덕성을 규탄하고 있다. 슈트라우스의 「친구 하인」에서도 교사들의 비교육적인 태도는 지탄받고 있다. 그러나 헤세의 「수레바퀴 밑에서」는 다같은 교육소설이면서도 이들 작품들과는 그 분

3) H.-J. Geerdts (Hrsg.): Deutsche Literaturgeschichte in einem Band. S.421. 참조.

위기가 사뭇 다르다. 이 소설은 그 초점을 피교육자인 소년에게 맞추어 학교, 교사, 부모들의 물이해와 허영심이 자라나는 소년, 소녀들에게, 특히 감수성이 예민한 사춘기의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아주 감동적으로, “시적으로, 더없이 인상적으로”<sup>4)</sup> 그리고 있다. 이 소설에서 헤세는 비범한 재능의 한 소년이 “빌헬름 2세 치하의 학교 제도의 강압 하에서 좌절되어 가는 모습”<sup>5)</sup>을 우리에게 보여 주지만, 그 과정에서 소년들의 미묘한 심리적 추이, 주위 세계와의 마찰과 갈등, 냉엄한 현실 속에서 좌절되어가는 그들의 꿈, 그들의 고뇌를 묘사해 나가는 그의 특유의 필치는 가히 독보적이라고 할 수 있을만큼 빛나고 있다. 헤세는 그의 동시대의 다른 어떤 작가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교육 문제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아주 예민한 반응을 보였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곧잘 그의 작품의 중심 테마로 채택했다. 그러나 학교 교육이나 인간의 인격형성 문제를 다루고 있는 그의 수많은 작품에서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한 그의 반응이나 시각이 지나치게 비판적이며 부정적임을 발견할 수 있다. 물론 이 문제에 대한 작가로서의 그의 집요한 천착이 당시의 교육계가 안고 있던 구조적 모순과 병폐 등을 섬뜩할 정도로 날카롭게 적출하고 그런 교육 현실 하에서 무척하게 꺾이는 어린이들의 비극적인 삶을 박진감이 넘치게 묘사하고는 있지만, 한 편으로는 이런 비판과 묘사 속에서 우리는 교육문제에 대한 그의 생각이나 주장이 때로는 어떤 편견이나 어떤 일방적인 감정에서 출발하고 있는 듯한 느낌과 그리고 또 교육에 대한 모종의 콤플렉스가 그의 의식세계 속에 깊이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는 듯한 인상을 이따금씩 받는다. 그럼 도대체 무엇이 헤세로 하여금 이렇게 교육문제에 대해 깊이 관여케 했으며 교육에 대한 그의 부정적 시각은 도대체 어디에 기인하고 있는가? 그것을 구명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의 교육 배경, 다시 말하면 그의 성장 환경과 교육 환경, 그리고 당시의 독일 교육계의 실상 등을 살펴 보고 이런 교육 배경이 그에게 형성해 준 교육관과 교사상은 어떤 것이며 그것이 그의 작품 속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그리고 그가 궁극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교육이념이 무엇인가를 밝혀 보기로 한다. 우선 그의 교육 배경부터 살펴 본다.

## 2.

헤세는, 그의 어머니가 남긴 일기에 의하면, 이미 4살 때부터 놀라운 지능과 아주 예민한 감수성을 들어낸 매우 영특한 아이였다. 그러나 그는 고집이 세고 사나우며 방항적이어서 어릴 때부터 부모들을 무척 괴롭혔다. 헤세의 어머니가 여행 중인 남편에게 쓴 편지에서 “이 아이를 교육시킬 힘을 가지도록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이 아이는 하나의 생

4) ebd. S. 527.

5) ebd. S. 564.

명을, 거인과 같은 힘을, 강한 의지를, 그리고 4살로서는 아주 놀라운 지력을 가지고 있습니다.”<sup>6)</sup>라고 호소할 정도로 다루기 힘든 아이였었다. 그는 이미 어릴 때부터 자신을 제어할 수 없는 어떤 정채불명의 힘을 그의 내부에 지니고 있었고 이런 데모니쉬한 힘은 사람을 위대하게 만들 수도 있고 반대로 사람을 파국으로 몰고 갈 수도 있다는 사실을 헤세의 어머니는 이미 어렴풋이 깨닫고 있었다. 얼마 후의 학교생활에서 그에게 결정적인 위기를 몰고 온 불운의 전조가 이미 이때 보였던 것이다. 그러나 헤세의 양친에게 극히 섬세한 감각과 영혼을 지닌, 그리고 비상한 상상력을 가진 이 천재적인 이이에 대한 교육 방법도, 대비책도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저 속수무책으로 불안한 예감에 떨고 있었다. 어린 헤세는 취학기 이전부터 예사로 유치원에 빠지고 걸핏하면 주위 사람들과 다투고 어른들에게도 마구 대들었다. 그래서 헤세의 아버지는 노심초사하던 끝에 아들을 어떤 특수한 교육기관이나 다른 사람에게 맡겨보는 것이 어떨까하고 심각하게 고려한 적이 있다고 한 편지에서 실토하고 있다. 부모들의 이런 불안과 우려는 그가 학교에 다니면서부터 곧 하나의 현실로 나타났다. 어떤 종류의 게울이나 구속에 대해서도 완강히 반대하는 그의 기질로 미루어 보면, 아무리 작은 공동체이되던 규율과 질서를 요구하는 학교 생활에 그는 적응할 수 없다.

결국 “너는 무엇을 해야만 한다는 소리만 들으면 내 안의 모든 것은 반대 쪽으로 향하며 완강해 진다.”<sup>7)</sup>고 헤세 자신이 밝히고 있듯이, 그는 학교에서나 가정에서나 문제아의 취급을 받는다. 헤세는 이 때의 자신의 심경을 후에 「나의 소년 시대」에서 “학교에서는 심하게 다루어지고 집에서는 어떤 잘못으로 침묵 속에서 압박받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때때로 넓은 초원에 나가 풀밭에 쏠아져 흐느끼 울면서 어떤 미지의 잔학하고 강력한 힘과 싸웠다.”<sup>8)</sup>고 회고하고 있다. 그는 이렇게 초원에서 지내는 외로운 시간이 많아지면서 점점 자연이나 상상의 세계 속으로 빠져 들었다. 친구들과 어울리 놀 나이에 혼자서 인적이 드문 초원에서 구름, 나비, 풀들이나 관찰하면서 공상이나 즐긴다는 것은 심상치 않은 일이었다. 하지만 머리 속에서 펼쳐지는 환상의 세계만이 어린 그에게는 유일한 도피처였고 어릴 때부터 그의 상상력은 주위 사람들을 놀라게 할 정도로 비범했었다. 후에 동서 고금의 모든 학예를 총동원하여 펼쳐는 유리알 유희라는 기발한 정신적 유희를 창안해 낸 것도, 영혼의 고향을 찾아 순례의 길에 오르는 동방 순례단의 기이한 정신적 행적을 고안해 낸 것도 다 그의 이런 뛰어난 상상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의 이런 타고난 천재적 공상력은 그후 외할아버지와 어머니에 의해 더욱 계발되었다.

헤세의 외조부인 군데르트(H. Gundert)는 유명한 전도사이면서도 동양어 학자였다. 그는 인도에서 다년간 전도활동을 했고 산스크리트어, 땡갈어, 페리어에도 능통해서 성서를 인도어로 번역할 정도였다. 그래서 그의 서제에는 수많은 동서양의 장서와 함께 동양의 여

6) B. Zeller: Hermann Hesse, S. 15.

7) Traumfahrt, Kurzgefaßter Lebenslauf. G.W. Bd. 6, S. 392.

8) Heimann Lauscher, Meine Kindheit. G.W. Bd. 1. S. 232-233.

러가지 신기한 우상이나 조각품, 그림, 글씨 등이 가득차 있었고 서로 다른 외모, 피부색, 의상, 언어의 이국인들이 끊임없이 드나들며 함께 기도도 올리고 성서도 읽고 음악도 연주했다. 거기에서는 상이한 동서의 정서나 문물이 사이 좋게 공존하고 있었다. 헤세 자신의 표현에 의하면 “수많은 세계의 빛이 여기에서 교차되고 있었다.”<sup>9)</sup> 어린 헤세는 거기에서 이 세계의 다양성, 모습이 다른 인간들 간의 우의, 서로 다른 종교의 만남과 기도 방법을 보면서 먼 이국에 대한 호기심과 동경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그의 세계 시민적인 박애정신과 동양사상에 대한 심취는 여기에서 싹트던 것이다. 그의 외할아버지는 쾰른 수염 속에 완전히 덮혀진 그 얼굴처럼 어린 손자에게는 언제나 신비롭고 초현실적인 존재로서 외경의 대상이었지만, 마술사와 같은 이 외할아버지의 불가사의한 능력과 체취는 그를 언제나 끝없는 공상의 세계로 이끌었다. 이 서제 안에는 모든 것이 풍부하고 다양했지만 거기에는 항상 “질서정연하고 엄밀한 중심”<sup>10)</sup>이 있었고 그 중심에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절대적인 권위로 좌정하고 있는 경전주의적인 기독교가 있었다. 그의 할아버지 못지 않게 어린 헤세의 인간 형성에 큰 영향을 끼친 사람은 예술 감각이 아주 탁월한 그의 어머니였다. 특히 어머니가 들려주는 옛 이야기나 동화는 어린 헤세의 상상력을 마음껏 뻗어나게 해주었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 요하네스 헤세(Johannes Hesse)는 어머니와는 아주 판이한 세계의 사람이었다. 요하네스는 명상과 침묵에 잠겨 자신의 내부로 침잠하는, 단정하고 결백증이 심해서 사소한 게으름이나 비행도 절대로 용서하지 않는 준엄한 원칙론자이며 금욕주의자였다. 헤세는 후에 누이 동생 아델레(Adele)에게 쓴 편지에서 “우리를 길러준 것은 할아버지의 자비로우신 英知와 어머니의 끝없는 공상과 사랑의 힘, 그리고 아버지의 세련된, 고난을 이겨내는 능력과 예민한 양심이였다.”<sup>11)</sup>고 회고했지만, 사실 그의 아버지는 절대적인 권력자처럼 가정 위에 군림하여 경전주의적인 종교와 생활을 자녀들에게 독려하고 강요하는 무서운 집행관이나 다름없었다. 어린 헤세는 그의 아버지에게 의해 강요된 “하나의 엄격한 법칙 속에 갇힌 생활”<sup>12)</sup>에 반기를 들었고, 아버지는 이런 아들을 매로 다스렸다. 이런 부자 간의 반목과 갈등을 가장 잘 그리고 있는 작품이 바로 「어린아이의 마음」(Kinderseele)이다. 이 작품의 주인공인 소년은 아버지에게 대한 증오감과 적대감이 점점 커져서 마침내는 자기 집에 대한 방화와 아버지를 살해하고 싶은 끔찍한 생각을 품기에 이르른다. 그의 가정을 지배하고 있는 무거운 종교적 분위기와 종교적 제율의 엄격한 독려자인 아버지의 강압적인 자세가 성장기의 소년에게 이런 의외의, 엄청난 부정적인 반작용을 불러 일으키고, 그것이 다시 그의 학교 생활에까지 어두운 그림자를 던지게 된다. 소년의 마음 속에서는 이런 엄청난 일들

9) B. Zeller: Hermann Hesse. S. 14.

10) ebd. S. 14.

11) ebd. S. 14 (재인용).

12) Gedenkbätter, Erinnerung an Hans. G.S. Bd.4. S.220.

이 일어나고 있는때도, 그의 가정은 표면적으로는 “소시민적인 경건주의”<sup>13)</sup>에 지배되는 밝고 평화로운 낙원처럼 보였다. 그러나 이 집에서 및 발자욱만 밖으로 내디디면 거기에는 범죄와 악덕이 들끓고 있는 어둡고 추악한 세계가 있었다. 이 두 세계를 드나들며 자라난 어린 헤세에게 이 두 세계의 명암이나 대립이 어떻게 비쳐졌고 또 먼 동양의 이국으로, 넓은 세계로 그의 관심을 자연스럽게 이끌어 주던 그의 가정의 국제주의적인 꿈기와 그것을 억제하며 내리누르고 있는 무거운 종교적인 분위기가 어린 소년에게, 특히 그의 인간 형성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는 그의 작품에서 그 해답을 구할 수 밖에 없다.

### 3.

헤세의 학창 생활에 불행의 그림자가 던져지기 시작한 것은 그가 13살이 되면서 갑자기 시인이 되기로 결심하면서 부터였다. 그 또래의 소년들이 흔히 선호하는 여러 직업을 다 마다하고 시인이 되기로 결심한 것은 실로 놀라운 선택이었다. 누구와 상의한 적도 없이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은 곧 그의 내부에는 어떤 외세에도 영향받지 않는 그 자신의 확고한 세계가 이미 구축되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가 이런 결심을 하기 이전까지는 그런대로 그리 학교 생활은 큰 말썽을 빚지 않았고 성직도 학급에서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었다. 물론 그와 교사와의 관계는 처음부터 원만치 못했다. 취학 전의 아버지 대해 품고 있던 증오감과 적대심이 학교에 입학하면서 부터는 아버지처럼 권위와 독선을, 그리고 때로는 폭력까지 휘두르는 교사들에게로 이미 옮겨져 있었다. 그는 왕성한 지적 욕구에 불타고 있는 소년들의 의문이나 질문에 대한 교사들의 무성의한 대답이나 야유적인 태도를 보고, 그리고 어린이들의 순수한 신앙심이나 정의감에 대한 그들의 폭언을 듣고 분개했다. 특히 그는 그들이 마구 휘두르는 폭력을 아주 싫어 했다. 제자들을 사랑하여 교화하리는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 그들의 체벌은 그에게 터무니 없는 권력의 남용으로 여겨졌다. 이런 체벌을 “도덕적 잘못을 교정하는 가장 간단한 해결책”<sup>14)</sup>이라고 생각하며 함부로 어린이들에게 가하는 자기 선생이나 아버지를 빗대어 자신은 불행하게도 학교와 가정에서 “두 사람의 주장”<sup>15)</sup>에게 복종을 강요당하고 있다고까지 말했다. 이런 매질이 두려워 소년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거짓말을 배우고 외교술까지 익히게 된다면서 소년들의 영혼을 위축시키는 성인들의 폭력을 매도했다. 그리니 그가 시인이 되기로 결심한 순간부터 그와 교사들과의 관계는 더욱 악화되었다. 어린 그는 이미, 시인이 되는 길은 영웅의 길처럼 외롭고 험준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시인이 과거의 세계에서는 완전히 빛나고 어떤 교과

13) H. Ball: Hermann Hesse. S. 20.

14) Hermann Lauscher, Meine Kindheit. G.W. Bd.1. S.232.

15) ebd. S.232.

서에서나 다 그들은 찬사를 받고 있지만, 현실의 세계에서는 그들에게 조소와 적의를 보내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절망했다. 특히 그의 천부적이며 시적인 상상력에서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는 의문들, 이를테면 무지개는 무엇인가, 바람은 왜 겨울에 구슬피 우는가, 목장은 왜 시드는가 등의 질문은 선생들 뿐만 아니라 동급생들에게 까지도 완전히 비웃음거리가 되었다. 그래서 그는 그 자신과 그의 먼 목표사이에는 뛰어넘을 수 없는 절망적인 심연이 가로놓여 있는 것을 발견했다. 학교나 교사와의 거리는 더욱 멀어졌고 이제는 그것들이 그에게 적대적인 세력으로서 비쳐져서 그것과 싸우는 수단이면 어떤 것이나 다 정당하다고 여겨졌다. 이 때의 그의 참담하고 절망적인 심정은 다음의 짙막한 글에서도 엿볼 수 있다.

Auf die Dauer ist mir das nicht gelungen, meine späteren Schuljahre brachten mir und ihr schwere Stürme, Prüfungen und Enttäuschungen, viel Leid und Tränen, viel Streit und Mißverständnis.<sup>16)</sup>

헤세가 칼프의 라틴어 학교에 처음 입학했을 때는 할아버지처럼 훌륭한 목사나 언어학자가 되는 것이 꿈이었다. 라틴어 학교를 마치고 관비생으로서 신학교와 튀빙겐 대학을 거쳐 목사나 교사가 되는 것이 그 당시로서는 누구나 선망하는 이를테면 엘리트 코스였다. 어린 헤세도 신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 더 좋은 라틴어 학교가 있는 괴핑겐(Göppingen)으로 옮겼다. 그는 이 살벌한 공업도시가 싫었지만 더 이상 어머니에게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려고 애썼지만 여기에서도 기숙사의 늙은 여자 사감과 충돌했고 선생들과는 사이가 좋지 않았다. 그에게는 “교사들이란 아마도 훌륭한 자유로운 인간의 성장과 위대하고 빛나는 행위의 수행을 가능한한 막기 위해서 임명되어 있고 양성되어 있는 지도 모른다.”<sup>17)</sup>고 생각되었고 교사들의 언행이 일치되지 않는 이중성을 목격하면서 그때까지 그의 위에 군림하고 있던 모든 권위를 철저히 배격하기로 결심한다. 그는 “외부로부터 들려오는 소리”<sup>18)</sup>는 거부하고 “자신의 내면의 소리”<sup>19)</sup>에만 귀를 기울이고 따르기로 생각하고 이 때부터 이른바 그의 내면화가 시작된다. 그것은 시인으로서 그가 당연히 걸어야 할 길이었지만, 그 길은 그를 점점 더 학교로부터 분리시켰다. 그러나 명석한 두뇌를 가진 그는 치열한 입시경쟁을 뚫고 모든 소년들이 선망하던 마울브론 신학교(Seminar im Kloster Maulbronn)에 합격했다. 그러나 시인이 되기 위해서는 오로지 자신의 내면세계 속으로 침잠하여 거기에서 진실한 자아를 찾고 그 안에 있는 “단 하나의 절대적이고 신성한 법칙”<sup>20)</sup>만을 존중하고 그 밖에는 어떤 규범이나 명령이나 질서에도 따르지 않기로 이미 결심한 그에게 수도원에서 경영하는 신학교의 엄격하고 획일적인 교육 방법과 군대식의 기숙사 생활이 받아들

16) Gedenkblätter, Aus meiner Schulerzeit, G.S. Bd.4. S.602.

17) Traumfahrt, Kurzgefaßter Lebenslauf, G.W. Bd.6. S.394.

18) Betrachtungen, Eigensinn, G.S. Bd.7. S.194.

19) ebd. S.194.

20) ebd. S.194.

어질 리가 없었다. 그는 입학한지 1년도 되지 않아서 어느 날 갑자기 “내면으로부터 불어 오는 폭풍우”<sup>21)</sup>에 휘말려 마침내 신학교의 기숙사를 탈출했다. 그 당시 주위에서는 이것을 일시적인 발작적 행동으로 보았지만, 그것은 결코 일시적인 충동에서 나온 행동은 아닌 것 같다. 그것은 어쩌면 오래동안 그의 심지에 억압되어 있던, 시인이 되려는 강렬한 욕구의 폭발이었는데도 모르고 어릴 때부터 그를 제약하고 구속해 온 그의 가정의 완고한 종교적 전통에 대한 반기였는지도 모른다. 그리고 또 그것은 어쩌면 학교, 교사, 아버지와 같은 강력한 권위에 대한 도전인지도 모르고, 한 개인이 일찍부터 의식한 자아를 지키려는 자구책의 일환이었는데도 모른다. 발(H. Ball)은 과거에도 신학교를 탈출한 사람은 많았고 헤세의 집 안에도 이런 전력을 가진 사람이 과거에 몇명 있었다고 보고하면서 슈바벤(Schwaben)<sup>22)</sup> 주민들의 생활이나 기질 속에는 신학교의 일률적인 엄격함과는 처음부터 감정적으로 대립되는 요소가 많다는 점을 지적하여 그의 탈출도 슈바벤인들의 특성과 결코 무관하지만은 않음을 시사하고 있다.<sup>23)</sup> 그러나 신학교를 탈출한 학생은 전체 학생에 비하면 극소수에 지나지 않았고 또 1890년대의 독일의 학교 교육방법에는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어 있었고 특히 신학교는 사회 일각에서 폐지론을 제기할 정도로 그 운영방법이 지탄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입학생 중 거의 대다수는 이런 고되고 비합리적인 교육 과정을 무사히 마쳤던 것이다. 그렇다면 그의 탈출은 전적으로 슈바벤적인 특성이나 그 당시의 잘못된 교육방법의 탓만으로는 돌릴 수 없다. 헤세의 어머니의 일기나 신학교 측과 헤세의 양친 사이에 오간 편지들에 의하면 오히려 헤세 자신에게 더 큰 문제점이 있었음이 들어나고 있다. 그 당시 헤세에게는 자기 자신을 훈련하고 제어하여 자신의 정신과 심성을 필요한 울타리 속에 가두는 능력이 현저하게 결여되어 있었고 학업에 대한 의지도 거의 눈에 띄지 않고 수업시간에는 공상과 시작에만 몰두하고 있었던 것 같다. 게다가 어릴 때부터 이미 들어난 그의 비사교성과 고독벽, 그리고 자기 세계만을 주장하는 그의 완강한 고집 등으로 미루어 보면, 어쩌면 그는 학교 또는 사회라는 하나의 공동체의 울타리 속에 갇히기에는 너무나 “용적이 큰 인간”<sup>24)</sup>인지도 모른다. 어쨌든 이 사건 때문에 마울브론 신학교는 헤세를 퇴교시켰고 그 충격으로 헤세는 정신치료를 받아야 했고 잠시 소년원에 수용되기도 했다. 그러다가 1893년 11월에 칸슈타트(Cannstatt)에 있는 김나지움에 편입했다. 그러나 양친들, 교사들, 주위의 친지들의 온갖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살소동을 빚어 이 학교에서마저 쫓겨나 이제 그에게 학고 교육에의 길이 완전히 차단되어 버렸다.

...keine Schule wollte mich behalten, in keiner Lehre hielt ich lange aus.

21) Traumfahnte, Kurzgefaßter Lebenslauf. G.W. Bd.6. S.395.

22) Schwaben은 Baden-Württemberg주 일대의 지명 이름, Hesse의 고향 Calw는 이 지명의 한 작은 도시임. Schwaben은 Hegel, Schlegel, Holderlin, Morike, Hauff 등을 배출한 유서깊은 고장임.

23) H. Ball: Hermann Hesse. S.54-58 참조.

24) Der Steppenwolf. S.185.



Jeder Versuch, einen brauchbaren Menschen aus mir zu machen, endet mit Mißerfolg, mehrmals mit Schande und Skandal, mit Flucht oder mit Ausweisung.<sup>25)</sup>

이로써 그는 명예로운 그의 가문의 전통적인 직업인 목사로부터 완전히 멀어졌을 뿐만 아니라 인근의 찬사와 선망, 축복을 함몰에 받던 자랑스러운 신학교의 학생으로부터 경멸과 냉소를 받는 생의 낙오자, 패배자로 전락했다. 그는 아버지의 일을 도와주기도 했고 한 탐시계 공장에서 견습 직공으로 일한 적도 있지만 그것은 잠시일 뿐 극도로 허약해진 심신, 마치 전염병 환자를 바라보듯이 자기에게 쏠리는 주위의 시선때문에 집안에 들어박혀 죽음만 생각하는 하루 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헤세는 후에 그의 소설 「수레바퀴 밑에서」를 읽고 자살의 충동을 느끼고 있다는 한 독자(학생)의 편지에 대한 답장에서, 자신이 그때 자살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별, 계절, 신록, 구름의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는 능력과 그 자연의 아름다움을 시적으로 재구성할 힘이 자신에게는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밝혔다.<sup>26)</sup> 시인이 되려는 ‘아름다운 광열(狂熱)’이 이런 위기에서 그를 바쳐 주었기 때문이었다. 결국 그는 문학에 대한 열정과 의지로써 절망을 딛고 일어 섰던 것이다. 그 자신의 말처럼, 신이 인간에게 절망을 보내는 것은 그 인간을 죽이기 위해서가 아니고 그 인간 속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 넣어 주기 위해서인지도 모른다.<sup>28)</sup> 정상적인 학교 교육에의 길이 완전히 막혀버린 그는 이제 혼자의 힘으로 외롭게 자기 수업의 길로 들어 섰다. 이른바 그의 “시적 자아 형성”<sup>29)</sup>기가 시작된다. 헤세는 실의와 좌절에 빠진 외로운 나날을 집안에서 독서로 보냈다. 이럴 때 그의 외할아버지나 아버지의 풍부한 장서는 더없이 큰 위안이었고 그의 문학 수업의 중요한 보고였었다. 그는 본격적으로 산문 작가가 될 계획을 세워서 괴테와 낭만파 작가들의 작품들을 탐독했고 외국 작가로는 푸쉬킨, 투르게네프, 셰익스피어, 디킨스, 스위프트, 세르반테스, 입센, 졸라, 볼테르의 작품들을 많이 읽었다. 그후 튀빙겐의 서점에 취직하면서 그의 독서는 더욱 체계적으로 광범위하게 추진되었고 이때 그는 세계문학의 거의 절반을 1년 동안에 독파했다. 그후 다시 바젤(Basel)에서는 문학뿐만 아니라 철학, 예술, 언어학, 역사학 등 사회과학 분야에 까지 그의 독서의 폭을 넓혀 나갔다. 그러나 그의 독서의 중심에는 항상 괴테가 서 있었다. 괴테는 방황하던 그의 영혼의 구심점으로서 그를 교육시켰고 그에게 조화와 절제를 가르쳤다. 그는 괴테를 통해서 모든 가치판단에 대한 일정한 입장을 확립하게 되었다. 헤세는 후에 「괴테에 대한 감사」(Dank an Goethe)라는 글에서 “모든 시인 중에서 내가 가장 많이 은혜를 입었고 나를 가장 많이 공부시켰고 나에게 가장 많은 괴로움과 원기를 주었고 강한 信從을 요구했고 동시에 반항하도록 나를 내몬 것은 괴테였다.”<sup>30)</sup>라고 그의 영향력에 대해서 솔직히 고백하고 있다.

25) Traumfährte, Kurzgefaßter Lebenslauf. G.W., Bd.6. S.395.

26) Briefe. G.S. Bd.7. S.777.

28) Das Glasperlenspiel. S.279. 참조.

29) B. Zeller: Hermann Hesse. S.29.

이와같이 문학, 철학, 예술, 역사학 등에 대한 그의 광범위한, 그러면서도 체계적인 독서는 그의 학교 교육의 결손을 얼마만큼은 메꾸어 주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가 서점이라는 비교적 혜택받은 직장에서 손쉽게 다방면의 책들을 입수하여 그의 지식의 영역을 넓혀가면서 착실하게 그의 “문학적 자기 형성의 길”<sup>31)</sup>을 걸어 왔을지라도, 그리고 이런 독서를 통해서 그가 비록 위대한 선인들이나 선각자들과 끊임없이 정신적인 교류를 가지고 있었을지라도, 그것이 그에게 중단되었던 학교 교육을 완전히 대신해 줄 수는 없었던 것 같다. 학교 교육의 중요함은 다양한 지식의 전수나 습득이라는 점보다는 비슷한 연령대의 여러 다른 인격체들이 서로 부딪치고 화합하면서 서로의 장점을 배우고 단점을 보완해 나갈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제약이나 규범에 자신을 순응시켜 나가는, 다시 말하면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자신을 제한하며 훈련시켜 나가는 수련의 장이라는 점에 있다. 그러나 일찍부터 이런 기회를 박탈당하여 스승도 친구도 없이 자신의 내면세계 속에 갇혀서, 더구나 자신은 정상적인 생의 궤도에서 이탈한 ‘탈선자’라는 패배의식에 깊이 사로잡혀 온 그에게서는 많은 문제점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문제점은 그의 첫 산문집인 「헤르만 라우서」나 처녀 시집인 「낭만적인 노래」(Romantische Lieder) 속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 이 두 작품들 속에 펼쳐진 그의 문학 세계는 굳건한 현실의 토대 위에 구축된 건실한 세계라기 보다는 꿈과 유희주의 위에 마치 사정누각처럼 위태롭게 떠있는 병적이고 몽환적인 세계였다. 물론 이 세계에는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과 풍조가 반영되어 있을 것이다. 그래도 그것은 지나치게 밤과 꿈을 찬미하며 죽음을 동경하고 있고, 지나치게 탐미적이고 감상적이며 자조적인 영탄으로 가득차 있다. 현실적이고 일상적인 건강미를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것이 그의 초기 문학이 안고 있는 가장 큰 취약성이고 어쩌면 이것은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거치지 못한 그로서는 어쩔 수 없는 핸디캡이었을런지도 모른다.

#### 4.

헤세가 학교에서 수학한 기간은 전부 다 합해도 4년여 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 짧은 4년 간의 체험을 그는 전 생애에 걸쳐 수많은 작품 속에서 다루었다. 이런 작품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목사의 가정을 그 중심에 두고 있는 밝고 선량한 세계와 그것과 정반대되는 다른 또 하나의 어둡고 사악한 세계와의 대비 속에 자라나는 소년들의 성장사를 담고 있는 점이다. 이런 작품의 전형이 바로 「데미안」(Demian)이다. 이 소설의 주인공인 싱클레어는 청결한 복장과 바른 예절을 존중하고 아침에는 찬미가가, 저녁에는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는 밝고 깨끗하고 평화로운 세계에 속해 있지만 그의 친구 크롬마는 하니, 직공, 부랑아들

30) Betrachtungen, Dank an Goethe, G.S, Bd. 7, S. 374.

31) B. Zeller: Hermann Hesse, S. 35.

이 많이 사는, 강도와 살인이 자주 일어나는 어둡고 추악한 세계의 일원이었다. 그러나 이 후자의 세계는 자극적이고 변화무쌍하며 무수한 비밀에 싸여있어 어린 싱클레어의 호기심을 자극한다. 그는 친구 크롬마에 의해 이 금단의 세계와 접촉하고 부터 죄책감과 불안에 떠난다. 그는 지나치게 엄격한 종교적 분위기에서 계율과 통제하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만큼 금지된 세계에 대한 관심이 컸고 유혹에는 약했으며 죄를 범한 후의 양심의 가책도 훨씬 남들보다 컸다. 일반적으로 잔인한 도덕율에 얽매어 온 어린이들은 의외로 독선적이고 편협하며 이들이 탈선하면 더욱 반항적이고 공격적인 특성을 나타낸다고 알려져 있다. 소설 「어린이의 마음」의 주인공이 바로 이 케이스에 해당된다. 베버라는 불량소년을 통해 악의 세계에 발을 들여놓은 이 소년은 아버지의 부제 중에 그의 서제에서 무화과 과자를 훔친다. 이것이 이 소년을 심한 죄책감과 불안, 공포 속에 빠지게 하고 그의 가정의 종교적 전통이 이런 감정을 더욱 증폭시킨다. 그러나 그의 행동은 반대로 더 난폭해지고 자신의 잘못을 아버지의 부제 탓으로 돌리며 아버지를 직대시하며 증오하고 그 아버지가 섬기는 신까지 저주한다. 그는 불안, 공포에서 벗어나기 위해 마침내 자기 집에 방화하고 아버지까지 살해할 생각까지 품는다. 천사들이 드나들던 천진난만한 어린 영혼 속에 마침내 악마가 발을 들여 놓은 듯 섬뜩한 느낌을 주는 작품이다. 이런 아버지에 대한 적대감은 취학 후부터는 소설 「중단된 수업」에서처럼 자연스럽게 학교의 선생들에게도 옮겨가고 있다. 이 작품은 학생들에게 상식에서 벗어나는 부당한 행동을 지지하거나 강요하는 비교육적이고 비인격적인 교사들의 작태가 바로 교사들이 학생들로부터 불신당하고 배척당하는, 그 때문에 학교와 교사는 엄연히 존재하는 데도 교육부재라는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현실을 고발하고 있다. 이런 점은 「데미안」의 싱클레어가 크롬마의 유인과 협박에 못이겨 죄과를 범한 후 어린 소년으로서는 감당하기 힘든 양심의 가책으로 허덕이면서도 학교로 찾아가 선생에게 이 문제를 상담하거나 양친의 집으로 돌아가 기도하며 참회하기를 끝까지 거부하며 오히려 그들을 불신과 경멸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들에게 대해 이상한 우월감이나 반역자의 쾌감 같은 것을 느끼고 있는 태도에서도 단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소년에게는 이제 교사들이나 양친들의 문제해결 방식이 전혀 아무런 설득력이 없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신봉하고 있는 사회규범이나 도덕적 가치기준이 이 소년의 눈에는 너무나 낡고 탄력성을 잃은 과거의 불품없는 척도처럼 보였다. 그러므로 호기심이 많은 사춘기의 소년, 소녀들이, 사소한 계기로 과오를 범해 죄의 수렁 속으로 빠져들어도 그들은 이들로부터 아무런 구원도 기대할 수 없고 따라서 모든 소년들은 악의 유혹 앞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다고 이 작품은 항의하고 있다. 그러나 싱클레어의 행적이나 인간형성 과정을 주시하면, 해서는 항의에서 그치지 않고 학교 교육 자체를 부정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기존의 기독교적 세계관에 대해서마저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다. 싱클레어는 모든 전통과 권위를 배격하고 기성 세대들의 재래식 문제해결 방법도 거부하며 성시에 대해서도 혁명적이고 파격적인 해석의 가능성을

제시하는, 이를테면 신과 함께 악마의 존재도 승인하여 그것을 받아 들이고 신과 악마를 다 같이 경배하며 악마도 그 안에 포함된 새로운 신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친구 데미안의 주장에 적극 동조하여 그의 권유에 따라 그의 내면에서 들려오는 소리에만 귀를 기울이며 방황하고 좌절하면서, 생의 어두운 혼돈을 체험하면서 인간적으로 성숙해 나간다. 헤세는 사회질서나 규범의 기반을 형성하고 있는 윤리적, 도덕적인 가치체제나 학교교육의 가치를 철저히 부정한다. 그는 이런 것에 의한 인간성의 개선이나 향상에 대해서 회의적이다.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문학 작품이나 예술활동이 지닌 은밀하면서도 지속적이고 강한 교화력이나 순화력을, 또는 친구와의 우정이나 사회생활을 통한 개인의 직접적인 사회체험을 더욱 높이 평가했다.

학교 교육에 대한 그의 부정적 시각이 가장 선명하게 구체적으로 들어난 작품이 바로 헤세 자신의 신학교 시절의 체험을 담은 「수레바퀴 밑에서」이다. 이 소설에는 상반되는 두 소년 한스 기벤라트(Hans Giebenrath)와 헤르만 하일너(Hermann Heilner)가 등장한다. 전자는 소심하고 내성적이지만 자존심과 공명심은 강한 착실하고 모범적인 공부벌레로서, 이를테면 소박한 자연아인 썸이다. 그러나 후자는 자유분방하고 충동적 정열을 가진 천재소년으로서 비상한 상상력과 뛰어난 지적 재능을 가진 조숙한 문예가이다. 이 소설에 나오는 교장이나 교사들은 모두가 하나같이 좋은 상급학교에 더 많은 학생들을 입학시키기 위해 거의 광적인 열의를 보이는 인물들이다. 그들은 어린 아이들의 능력이나 건강상태같은 것은 전혀 고려치 않고 어린 학생을 무엇이나 강제로 집어 넣으면 들어갈 수 있는 용기라고 생각하고 과도한 지식을 주입하기에 혈안이 되어 있었다. 뿐만 아니라 부모들은 부모들대로 자녀들을 좋은 학교에 넣기 위해 끊임없이 그들을 부추기고 있었다. 허영심과 명예욕으로 가득찬 이들의 과육과 행동이 아직 다 영글지도 못한 어린 영혼에게 얼마나 무서운 정신적 폭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가를 이 작품은 매우 설득력 있게 제시해 준다. 교육에 있어서 자유는 매우 중요하다. 자유가 없다면 필경 성인들과 어린이들 간에는 갈등이 생겨 어린이들에게 깊은 심리적 상처를 주게 된다. 어린 아이들의 욕구가 활발하게 발산되지 않으면 그것은 무의식 속으로 들어가 심저에 억압되어 있다가 인젠가는 폭발하고 만다. 한스는 좋아하던 낚시질도 토끼 기르기도, 친구들과 사귀는 것조차 다 포기하고 어른들의 독려에 쫓겨 공부에만 매달린다. 그러다가 그는 갑자기 포악해져 손도끼로 토끼집을 산산히 부서버리는, 전에 없던 행동을 보인다. 청소년들의 지적 욕구는 자연스럽게 충족되어야 한다. 그러나 입시준비 메와 같은 과대 교육은 학생들이 원하고 수용할 수 있는 정도 이상의 지식을 과도하게 공급하므로 잘못하면 그 지식에 대한 열정과 신선미를 빼앗고 지식 그 자체에 대한 흥미마저 잃게하며 심지어 학생들의 상상력과 창의성까지 죽먹는다. 한스도 예외는 아니었다. 이런 과대교육으로 그의 체력은 현저히 약화되고 공부에 대한 열의와 관심도 점점 잃어가고 오히려 선생들과 부모에 대한 적대적인 감정만 커졌다. 한스의 건강은 갈수록

악화되어 두통과 멀미가 심하고 무도병의 증세까지 보이지만 선생들과 부모들은 오히려 그들의 정신화 작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되어가는 증거라고 기뻐한다.

그러니 헤세는 끊임없이 긴장과 경쟁 속에서 체적질을 받으며 병들어 가는 이 어린 영혼을 보고 “학교나 아버지, 그리고 두서넛 교사의 잔인한 명예욕은 이 소년이 그들에게 있는 그대로 내민 명들기 쉬운 영혼을 전혀 후회하는 빛도 없이 마구 짓밟음으로써 이 나악한 아름다운 소년을 이 지경으로까지 몰고 와버렸다는 사실을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sup>32)</sup>라고 비분강개하고 있다. 이 작품에 의하면 1890년대의 독일 교육도 이미 몰개성화의 길로 들어서 있었다. 학생들이 저마다 타고난 개성이나 그들의 자연그대로의 거친 힘과 욕망을 “위험한 불꽃”<sup>33)</sup>이라고 간주하여 학교는 “병영과 같은 용이주도한 훈련”<sup>34)</sup>으로 이 불꽃을 짓밟아 끄고 그 자리에 “국가에 의해 인정된 조용한 균형잡힌 이상”<sup>35)</sup>을 심어주는 것이 그 당시 교사들이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사명이라고 헤세는 비난하고 있다. 이런 획일화, 규격화 교육하에서는 하일너와 같은 강한 개성, 비범한 두뇌와 상상력을 가진 천재는 희생의 제물이 될 수 밖에 없다. 하일너는 신학교를 탈출하고 한스는 점점 가증되는 정신화의 압력에 시들어 간다. 그의 건강은 더 이상 수확할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었고 집중력도, 기억력도 완전히 감퇴되었다. 그러나 교사들은 한스의 마음 속에는 “그들의 소망을 방해하는 독소”<sup>36)</sup>가 깃들어 있다고 단정하며 이 소년의 “악에 굳어진 태만성”<sup>37)</sup>을 몰아내기 위해 지치고 병든 이 소년을 온갖 방법으로 뺨박한다. 이 가냘픈 소년의 얼굴 위에 이미 몰락해가는 영혼의 빛이 애잔하게 어려있는 것도 발견하지 못하고.

Keiner...sah hinter dem hilflosen Lächeln des schmalen Knabengesichts eine untergehende Seele leiden und im Ertrinken angstvoll und verzweifeln um sich blicken.<sup>38)</sup>

결국 한스는 학업을 중도에 포기하고 고향으로 돌아와 우울증과 극도의 감성적인 염세감정에 사로잡혀 있다가 어느 날 개울에서 익사체로 발견된다. 한스의 장례식에 참석했다가 묘지문을 나시는 교정과 교사들의 등뒤에 대고 평소 한스를 아끼며 그의 건강을 염려하던 늙은 신기료 장수 홀라이크씨는 분노와 저주에 찬 목소리로 “저기 가는 저 녀석들은 이애를 이 지경으로 몰고 온 데 한몫 거둔 놈들이야!”<sup>39)</sup>라고 웨친다. 이 마지막 절규와 같은 일갈이, 헤세가 학교 교사들에게 품고 있던 감정을 그대로 대변하고 있다.

헤세는 이 작품 어디에서도 그가 생각하고 있는 이상적인 교사상에 대해서 언급한 바가

32) Unterm Rad, G.W. Bd.2, S. 117-118.

33) ebd. S. 50.

34) ebd. S. 50.

35) ebd. S. 50.

36) ebd. S. 117.

37) ebd. S. 117.

38) ebd. S. 117.

39) ebd. S. 178.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품을 읽고 나면 그가 그리고 있는 이상적인 교사가 어떤 모습인지 그 윤곽이 어렴풋이 잡힌다. 그가 머리 속에 담고 있을 훌륭한 교사는, 인간은 스스로 선택하면서 발달하는 동물이라는 대전제 하에서, 개개의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면서 그들의 왕성한 호기심으로 끊임없이 '왜' 하는 의문을 제기하도록 유도하고 그들 자신과 세계를 끊임없이 대비시켜 인간 상호 간의 차이를 인정하고 그것을 존중하는 법을 깨닫게 하며 그들 개개의 다양한 재능을 발휘하게 유도하되, 그것이 어떻게 하면 전체와 조화를 이룰 수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스러운 삶인가를 그들 스스로가 탐구해 나가도록 이끌며 도와주는 그런 스승일 것이다. 그래서 그는, "교사들은 우리의 높은 곳에서 정신과 인간성을 대표하고 우리의 영혼 속에 더 높은 세계에 대한 예감을 심어주기 위해서 힘을 가질 수 있다."<sup>40)</sup>고 믿었지만, 그가 학창시절에 만났던 선생들은 대부분 사악하고 음울하고 화를 잘 내며 티무니없이 권력만 남용하는 사람들 뿐이었다. 그러나 그의 수학기간은 남들보다 무척 짧았지만 그렇다고 그에게 존경하는 스승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가 존경하는 두 사람의 은사 중 괴팅겐의 라틴어학교 교장인 바우어(Bauer) 선생은 특히 그의 문학관이나 세계관 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인물이다. 이 바우어 교장은 남부 독일에서는 유능한 수험 지도자로서 상당히 명성이 높은 교육자였다. 헤세의 묘사에 의하면, 이 교장은 과거에는 스파르타식 교육으로 학생을 지도한 적도 있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학생들의 요구도 과감하게 수용할 줄 아는, 교사들이 흔히 가지는 편견이나 고압적 태도, 권위의식같은 것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은 아주 파격적인 인물로서 매우 독창적인 교육방법을 구사하고 있었던 것 같다. 헤세는 그를 서슴치 않고 "승배하는 半神"<sup>41)</sup>이라고 부르고 이 선생의 아주 특이한 교육자적인 형안과 태도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다.

Ich...war von diesem geheimnisvollen Alten eingefangen und völlig bezaubert worden, einfach dadurch, daß er an die höchsten Strebungen und Ideale in mir appelierte, daß er meine Uneife, meine Unarten, meine Minderwertigkeiten und scheinbar gar nicht sah, daß er das Hochste in mir voraussetzte und die höchste Leistung als selbstverständlich betrachtete.<sup>42)</sup>

개개의 학생에게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단점이나 무능을 보지 않고 오히려 그들 개개인들에게 장점과 최고의 재능을 인정하고 그것을 계발하기 위해 그들의 이성이나 열정에 호소하는 이 선생의 교육방법은 아주 탁월했다. 바우어 교장이 헤세에게 준 많은 "신선하고 독창적이며 천재적인 감화"<sup>43)</sup>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학교를 퇴학한 이 문제의 소년

40) Gedenkblätter, Aus meiner Schülerzeit. G.S. Bd.4. S.596.

41) ebd. S.604.

42) ebd. S.606.

43) ebd. S.607.

에게 놀랍게도 “외경의 능력”(eine Fähigkeit zur Ehrfurcht)<sup>44)</sup>을 심어준 사실이었다. 헤세의 고백에 의하면, 그의 영혼은 외경하고 숭배하는 마음으로써 높은 목표를 향해서 노력할 수 있을 때 가장 잘 성장하고 가장 아름답게 개화했지만, 그동안 이 행복한 자질은 무관심하고 잔인한 교사들 밑에서 거의 시들었다가 바우어 교장을 만나 다시 활짝 피어났다고 한다.<sup>45)</sup> 하지만 입학한지 1년 만에 학업을 중단함으로써 바우어 교장과 “한없이 풍요롭고 더없이 긴밀했던 관계”<sup>46)</sup>도 더 오래 지속되지 못했다. 그러나 바우어 교장이 그에게 심어준 외경의 정신은 그후 그의 문학과 인생의 근간이 된 “인생이나 그 의미의 가능성에 대한 외경”<sup>47)</sup>으로, 다시 세계나 전 인류에 대한 외경으로 발전하여 두 차례의 세계대전 중에 보여준 그의 인류애와 세계애의 중심사상이 되었다. 아 물론, 소년들이 외경의 대상을 가진다는 것은 교육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사실을, 그리고 진정한 교육은 어떤 제도나 기관이나 명성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진실한 마음으로, 열과 성으로 이끌어주는 인격과 그것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진지하게 수용하는 인격 간의 접촉에 의해 가능하다는 사실을 이 두 사람의 사제의 관계에서 확인할 수 있고, 그것은 다시 그의 작품 「유리알 유희」에서 늙은 음악명인과 크네히트(Knecht), 야코부스 신부와 크네히트의 관계에서, 그리고 또 크네히트와 소년 티토의 관계에서 다시 아름답게 상징화 되어 우리에게 많은 의미를 묵시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 5.

격심한 임시 경쟁 때문에 개개 학생들의 다양한 창의성과 아름다운 상상력, 빛나는 이상이 완전히 무시되는 교육 풍토 때문에 오늘 날의 학교에서는 시가 살아진지 이미 오래라는 한탄을 우리는 흔히 듣는다. 뿐만 아니라 인간의 정신이나 영혼보다 그의 능력이나 기술의 극대화만을 추구하고 생산을 높이는 지식만을 높이 평가하는 현대 산업사회의 살벌한 기술과 지식 위주의 풍조때문에 포울 발레리(P.A. Varéry)는 물질만능의 기계문명의 지배 하에 있는 유럽을 ‘지적 공장’이라고 한탄했고, 토마스 만(T. Mann)은 이런 병든 문명사회를 ‘결핵 요양소’에 비유하기도 했다. 그리고 칼 만하임(K. Mannheim)은 현대문명의 특징의 하나로서 유토피아의 상실을 지적하고 있다. 잘못된 교육, 각박한 사회풍조로 말미암아 꿈도 영혼도 다 상실하고 사고력마저 퇴화되어가는 현대인들은 현실을 뛰어넘어 미래를 꿈꾸며 설게할 의지와 능력마저 상실하고 말았다. 미래에 대한 기대나 지향을 잃었다는 것은 목표의식이나 방향감각의 상실을 의미하고 그것은 동시에 그들에게서는 더 이상 그들 자신

44) ebd. S. 606.

45) ebd. S. 606 참조.

46) ebd. S. 604.

47) Briefe. G.S. Bd. 7. S. 490.

을 다스릴 힘과 미래지향적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의미하기도 한다. 헤세는 20세기가 이런 위기에 직면한 것은, 바로 현대인들이 앓고 있는 두 가지 정신적 질환, 즉 기술에 대한 과대망상증과 국가주의라는 과대망상증 탓이라고 지적하고<sup>48)</sup> 2차 세계대전은 바로 이런 정신적 질환이 자초한 미증유유의 대참사라고 믿었다. 이런 두 가지 질환이 치유되어 건강을 되찾을 때 비로소 정신은 질서를 이끌고 나가는 향도력을 얻게 되고 그런 정신 위에서만 아름답고 이상적인 미래의 유토피아가 세워질 수 있는 것이다. 이런 그의 신념이 창작으로 결정된 것이 바로 「유리알 유희」이다. 따라서 이 작품은 유토피아를 잃은 현대인들에게, 히틀러에게 짓밟힌 세계인들에게 새로운 미래의 정신적 이상향을 제시하려는 의도에서 탄생된 것이다. 그러므로 이 소설 속에 그려진 유토피아는 현대문명에 대한 하나의 안티 테제로서 20세기와는 정반대되는 하나의 세계상이다. 따라서 이 유토피아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교육행위는 바로 오늘 날의 교육에 대한 비판 위에 기초하고 있는 헤세의 교육 이념에서 출발하고 있다. 특히 여기에 나타난 그의 교육이념은 세계대전의 체험을 통해 많은 수정이 불가피했던 그의 교육관의 반영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70여년 동안 쌓여 온 그의 오랜 정론의 결정이라는 점에서 비상한 관심을 끈다. 그러나 그는 결코 교육학자도 교육평론가도 아니고 단지 시인이고 작가일 뿐이다. 따라서 교육에 대한 그의 생각이나 주장은 결코 체계적이고 논리정연한 이론으로써 표명되어 있지 않고 때로는 암시와 은유로써, 때로는 상징과 알레고리로써 간접적으로 나타나 있다.

이 소설의 무대인 카스타린(Kastalien)은 정신의 품위가 땅에 떨어지고 도덕적으로 타락한 20세기가 몰락하고 몇세기 지난 후 정신의 부흥이 절실히 요청되던 시대에 세워진, 피테의 교육주를 연상시키는 정신적 이상향이다. 이 교육주는 엄격한 교단 제도에 의해 운영되지만 종교적 조직은 아니다. 그러나 이 조직의 구성원은 세속적인 관계를 청산하고 엄한 정신적 규율하에서 생활하면서 외형적인 성과에는 전혀 신경쓰지 않고 독창적인 예술 수업도 철저히 배제한다. 학문과 예술의 연마를 통해서 정신과 영혼의 함양에 힘쓰며 진리와 정신에 대한 의정심을 가지고 모든 것에 봉사할 수 있는 정신적 귀족을 양성한다. 그리기 위해서 여기에서는 음악, 종교, 철학, 수학, 논리학, 언어학 뿐만 아니라 동서고금의 철학자, 예술가, 현자들의 저서나 가르침 등 모든 학예를 종합적으로 추구한다. 그리고 한가지 특이한 점은 이 곳의 중요한 교육목표의 하나인 “자신을 보편적인 것 속에 될 수 있는대로 완전히 편입시켜서 초개인적인 것에 가능한 한 완전히 봉사할 수 있는 인간”<sup>49)</sup>의 양성을 위해서 명상을 특히 강조하고 있는 사실이다. 개개인의 개성과 독창성의 말살을 신랄하게 비난하던 헤세가 이 카스타린의 교육 목표를 독창적인 예술 수업을 배제하고 개인을 보편적인 것속에 완전히 편입시키는 데에 두고 있는 점은 놀라운 큰 변화이다. 개인주의는 우

48) Betrachtungen, Danksagung und moralisierende Betrachtung. G.S. Bd.7. S.457 참조.

49) Das Glasperlenspiel. S.12.



리가 있어서는 안되는 중요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것이 지나치게 무절제하게 추구되어 자유방임의 상태를 초래하면 그것을 다스려서 바로 잡는다는 명분하에 전제정치가 밀고 들어오는 실례를 그는 히틀러의 집권에서 경험했기 때문에 혼돈을 피하기 위해서는 무분별한 개인주의는 통제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전쟁 중에 가졌던 것 같다. 카스타린의 모든 정신활동 중 최고의 정화는 바로 유리알 유희이다. 인류의 모든 문화의 내용과 가치를 가지고 하는 이 정신적 유희도 결국 일체의 분화를 초월할 수 있는 보편화 능력을 기르는 고도의 정신적 훈련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명상은 이 유희에서도 필수적이다. 이 유희를 통해 고도의 보편화 능력을 얻게 되면 인간은 최고의 인식에 도달하여 모든 것을 긍정하며 사랑할 수 있고 진정한 의미의 봉사가 가능하며 대의를 위해 기꺼이 자신을 희생시킬 수 있게 된다. 이런 최고의 경지에 도달한 인간에게서만 초월자의 웃음, 즉 “초개인지인 미소”<sup>50)</sup>가 흘러나올 수 있다.

이 소설의 주인공인 크네히트는 카스타린의 바깥 세상에서 라틴어 학교에 다니다가 그의 명석한 두뇌가 인정되어 카스타린의 영재학교에 입교한다. 그는 이 영재학교를 마치고 다시 발트젤 대학을 거쳐 나중에는 카스타린에서 가장 정신적으로 높은 유희명인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두 사람의 스승을 만난다. 한 사람은 영재학교에서 그를 가르친 늙은 음악명인이고 다른 또 한 사람은 카스타린 바깥의 마리아펠스 교단의 야코부스 신부이다. 전자는, 소년시절의 크네히트가 회의, 갈등, 질망에 빠질 때마다 조언이나 설득으로 또는 명상 지도로서, 또는 무언의 행동으로써 스스로 위기를 벗어나 정도를 걷도록 조용히 인도한다. 그러나 철저하게 그의 자율적인 선택과 행동에 일임한다. 크네히트가 이 세상에는 과연 진리가 존재하는가 하는 회의에 빠졌을 때 이 음악명인은 “진리는 있다. 하지만 네가 찾는 ‘가르침’, 그것만으로써 완전히 현명해질 수 있는 절대적인 ‘가르침’, 그런 것은 없다. ... 신은 너의 앞에 있는 것이지 개념이나 책 속에 있는 것이 아니다. 진리는 생활 속에서 터득되는 것이지 강의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sup>51)</sup>라고 말하여 생활과 체험 속에서 진리는 찾아야 한다는 사실을 교시한다. 그러나 이 음악명인은 카스타린을 적극 옹호한다. 또 한 사람의 스승인 야코부스 신부는 그러나 카스타린을 비판하는 역사학자이다. 그는 카스타린의 정신이 아무리 순수하고 고결해도 그 속에 피가 흐르고 있지 않아서 생성도 변화도 할 수 없고 따라서 인젠가는 정체되어 부패하고 만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그는 또 크네히트에게 비창조적인 정신은 그것이 아무리 위대해도, 그리고 또 비활동적이며 현실세계에 대해 아무런 기여도 할 수 없는 정신은 그것이 어떤 빛나는 이상을 가지고 있어도 무가치한 것이라고 역설한다. 그의 주장에 의하면, 정신은 현실 속에 뿌리를 내려서 활동적이고 봉사적일 때에만 진실을 낳을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카스타린의 정신이 생산적이기 위해서는

50) ebd. S.47.

51) ebd. S.88.

혼탁한 역사세계의 밑바닥에 흐르고 있는 뜨거운 피를 자신의 혈관 속에 받아들여 그것을 자신의 창조적 에너지로 진화해야 한다.

크네히트는 끊임없는 내적 각성에 의해서, 그리고 또 현실주의적인 역사학자 야코부스 신부와의 대담과 논쟁을 통해서 차츰 현실세계의 본질을 파악하고 동시에 카스타린의 정신의 위기, 카스타린에서의 교육행위의 한계성을 적시하게 된다. 그리하여 마침내 그는 진공세계 속처럼 바람도, 변화도 생성도 없이 조용히 사멸해가고 있는 카스타린을 뒤흔들어 충격과 변화를 주기 위해서, 그리고 또 카스타린에서 갇고 막은 순수한 정신을 바깥 세상 속에 접목시켜 속세의 혼탁한 정신을 정화하기 위해서 유희명인 직을 사퇴하고 속세에 나간 소년의 가정교사가 되기로 결심한다. 그에겐 ‘가르친다’는 사실, 보다 더 훌륭한 정신을 위해 기꺼이 봉사한다는 사실 그 자체가 중요할 뿐이지 지위나 명성 따위는 아무런 가치도 의미도 없었다. 꿈과 환상만을 좇으며 비현실적이고 병적이며 탐미주의적인 노래만을 즐겨 부르던 초기 작품의 주인공 헤르만 라우서에 비하면 그 동안 많은 세월은 흘렀지만 이 작품의 크네히트는 실로 엄청난 변모를 보여주고 있다. 어느 화창한 가을날 그는 피리를 불며 카스타린을 떠난다. 그의 얼굴에는 밝고 부드러운 초월자의 미소가 어려 있었다. 그것은 유리알 유희가 추구하는 최고의 경지,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을 긍정하고 사랑할 수 있으며 완전무결한 봉사와 헌신의 준비가 되어 있는 최고의 인식의 경지에서만 나올 수 있는 미소이다. 그가 카스타린을 떠나는 것은 결코 배신이 아니고 오히려 카스타린을 위한 새로운 창조적 출발이며 더 큰 것, 더 중요한 것에 대한 헌신에의 제1보이다. 그의 환속은 그의 이상의 좌절이 아니고 이 교육주의 정신을 속세에 전파하고 보편적인 질서 속에 자신을 완전히 편입시킨다는 카스타린의 교육이념을 대외로 적극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이를테면 그의 실천적 교육의지에서 나온 획기적인 행보인 것이다. 그러나 그는 속세로 나오자 말자 제자인 티토와 함께 새벽의 호수에서 수영하다가 그만 익사하고 만다. 그의 새로운 사회활동, 특히 교육사업에 대해 많은 것을 기대하던 독자들에게 이것은 너무나 어이없는 의외의 결말이었다. 그래서 크네히트의 이 돌연한 죽음에 대해서는 많은 해석과 논란이 있다. 그러나 헤세 자신은 직접 이 죽음에 대해서 “크네히트의 죽음은 물론 많은 해석을 기질 수 있다. 나에게 대해 중심적인 해석은, 그가 용감하게, 기꺼이 완수한 희생의 의미이다. 내가 생각하기로는, 그는 그의 죽음으로써 젊은이에 대한 교육사업을 중단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다한 것이라는 점이다.”<sup>52)</sup>라고 자신의 입장과 견해를 천명하고 있다.

그리고 헤세는 자신의 강요로 새벽의 호수 속에 뛰어들었다가 참변을 당한 스승의 죽음 앞에서 견잡을 수 없는 충격과 슬픔, 자책에 빠져있는 티토에 대해서 “무슨 이의를 제기하더라도 명인의 죽음에는 자기도 책임이 있다고 느끼고 있는 동안 이 자책이 자기 자신이나 자기의 생활을 변모시키고 지금까지 그가 자신에게 요구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것을 자신

52) Briefe. G.S. Bd. 7. S. 640.

으로부터 요구할 것이라는 예감에 사로잡혀 소년 티토는 신성한 전율을 느꼈다.”<sup>53)</sup>라고 묘사해서 그의 죽음에 대해서 커다란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어쩌면 티토가 느낀 ‘신성한 전율’은 유명을 달리한 존경하는 그의 스승이 어린 그의 영혼 속에 불어 줄 “소명의 불꽃”<sup>54)</sup>을 받아 들이는 신성한 영혼의 떨림인지도 모른다. 결국 이 ‘불꽃’에 의해서 크네히트의 정신과 사명은 티토라는 한 어린 생명 속에 점화되어 그것이 그의 영혼 속에서 일생 동안 그를 훈계하고 격려하면서 인도해 나갈 것이다. 그럼으로써 카스타린의 정신은 티토를 통해 현실세계리는 토양 속에 뿌리를 내리게 되고 거기에서 더 강하고 더 훌륭한 새로운 정신을 꽃피워 낼 것이다. 따라서 카스타린과 바깥 세상을 정신적으로 이어주려던 그의 가교적인 역할과 교육자로서의 그의 임무는 다같이 완수된 셈이다. 그렇다면 그의 죽음은 결코 좌절이나 중단이 아니고 훌륭한 자기실현인 것이다.

크네히트의 죽음은 티토라는 한 소년에게 많은 의미를 전달하고 그것이 그의 앞으로의 활동이나 삶에서 어떤 형태로든지 영향을 미칠 것은 틀림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헤세가 기대하는 그런 교육적인, 아니 철학적인 효과까지 거둘 수 있을런지는 미지수이다. 어쩌면 그가 기대하는 것은 그 현실성을 보장받을 수 없는, 문학작품 속에서나 가능한 하나의 염원이요 이상일런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는 교육 이론가도, 교육정책의 입안자도 아니고 어디까지나 시인이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의 현실화를 그의 작품 속에서 열망하며 시도할 수 있다. 그래서 그는 에밀 슈타이거(E. Staiger) 교수에게 쓴 편지에서, 그 자신이 이 작품에서 시도한 것은 결국 어떤 하나의 가능성의 표현이라고 밝히면서 “어떤 이념을 불러 내는 것, 어떤 실현을 표현하는 것 그 자체가 이미 그 실현을 향해 내딛는 작은 일보입니다.”<sup>55)</sup>라고 자신의 신념을 펴놓고 있다.

## 참 고 문 헌

- H. Hesse: Gesammelte Werke. Band 1/ Band 2. / Band 6. (G.W.Bd.1 / G.W.Bd.2 / G.W. Bd. 6.), Suhrkamp Verlag.
- H. Hesse: Gesammelte Schriften. Band 4 / Band 7. (G.S.Bd.4 / G.S.Bd.7). Suhrkamp Verlag.
- H. Hesse: Gesammelte Werke in Einzelausgaben. Der Steppenwolf/Das Glasperlenspiel. Suhrkamp Verlag 1954-59.
- H. Ball: Hermann Hesse. Sein Leben und sein Werk. Berlin und Frankfurt a.M. 1956.
- R.M. Matzig: Hermann Hesse in Montagnola. Studien zu Werk und Innenwelt des

53) Das Glasperlenspiel. S.474.

54) G. Hafner: Hermann Hesse. S.79.

55) Briefe. G.S. Bd.7. S.638.

Dichters. Amersbach 1947.

G. Hafner: Hermann Hesse. Werk und Leben. Nürnberg 1954.

B. Zeller: Hermann Hesse. Hamburg 1966.

F. Baumer: Hermann Hesse. Berlin 1961.

T. Ziolkowski: Der Schriftsteller Hermann Hesse. Frankfurt a.M. 1979.

R. Karalaschwili: Hermann Hesses Romanwelt. Köln-Wien 1986.

J. Röttger: Die Gestalt des Weisen bei Hermann Hesse. Bonn 1980.

F. Pfafflin: Hermann Hesse, 1877•1977 Stationen seines Lebens, des Werkes und seiner Wirkung. Marbach 1977.

P. Fechter: Geschichte der deutschen Literatur. München 1957.

H.-J. Geerdts (Hrsg.): Deutsche Literaturgeschichte in einem Band. Berlin 1971.

W. Bortenschlager: Deutschsprachige Literatur des 20. Jahrhunderts. Verlag Leitner.

B. Russell: Education and the social order. London 1970.

岩本俊郎: 近代西洋教育史. 東京 1984.

矢内原忠雄: 教育と人間. 東京 1980.

김정환: 교육의 본질과 과제. 서울 1975.

## **Erziehungsproblem bei Hermann Hesse**

**Seok-Do Kim**

Bei Hermann Hesse steht die Frage nach der Erziehung und der Schule im Zentrum seines Werkes und nimmt einen breiten Raum darin ein. Sein Roman "Unterm Rad", seine eigenen Erlebnisse der Maulbronner Zeit beschrieben, gehört zu den typischen deutschen Erziehungsromanen. Hesses Interesse und Zuneigung für die Erziehung stehen im Zusammenhang mit seinen unseligen Schuljahren. Seine Schulzeit ist sehr kurz. Er hat nur vier Jahre lang in drei Schulen gelernt. Ferner ist Hesse aus zwei Schulen, d.h. aus dem Klosterschule in Maulbronn und aus dem Gymnasium in Göppingen, entlassen worden. Daß es so ihm in der Schule mißglückt ist, hat sich nicht nur mit dem damaligen irrationalen, verfehlten Schulsystem, sondern auch vor allem mit seinem eigenen Charakter verbindet: mit seiner ausgeprägten Individualität und mit seiner kühnen Selbstbehauptung. Seitdem hat Hesse eine kritische Sicht auf die Schule und auf die Erziehung gehabt.

Zuerst im ersten Kapitel dieses Aufsatzes wird ein Überblick über Hesses Werke gegeben, wo die Erlebnisse seiner Jugend- und Schulzeit dargestellt sind, in Vergleich mit den Erziehungsromanen von andern deutschen Erzählern. Dann im zweiten Kapitel wird untersucht, wie des jungen Hesses eigensinniger Charakter und die pietistische Frömmigkeit seines Elternhauses miteinander zusammengestoßen sind und wie sie Hesses Schulleben und Persönlichkeitsbildung beeinflußt haben. Im dritten Kapitel wird zuerst eine Skizze von Hesses Schulleben gegeben und dabei die Problematik des deutschen Schulsystems damals zum Gegenstand der Analyse gemacht. Dann wird erläutert, wie Hesse seine harte Prüfungszeit nach dem unterbrochenen Schulleben überwindet hat, welchen Einfluß seine literarische Selbsterziehung während dieser Krise auf seine künftige Laufbahn ausgeübt und welche Beziehungen sie zu seiner ästhetischen Weltanschauung in seinen frühen Werken gehabt hat.

Im vierten Kapitel werden Hesses kritische Sicht auf die Erziehung und sein Schulkomplex analysiert und seine Schulmeisterbilder erforscht, die in seinen Werken "Unterm Rad", "Demian", "Kinderseele" und "Aus meiner Schülerzeit" usw. geschildert sind. Dabei wird hier besonders ergründet, welches Licht Rektor Bauer, der Hesses aufrichtige Hochachtung gewonnen hat, auf seinen Lebensweg als Erzähler geworfen hat.

Durch die beiden Weltkriege hat Hesses Weltanschauung, freilich auch seine Ansichten über die Erziehung, große Veränderungen gehabt. Im funften Kapitel werden diese Veränderungen verfolgt, die sich in seinem letzten Roman "Das Glasperlenspiel" gespiegelt hat, und zum Schluß versucht dieser Aufsatz, Hesses neue padagogische Ideen zu erforschen, die er darin symbolisch und allegorisch vorgezeigt hat, und seine idealen Lehrerbilder zu erläutern, die er darin durch zwei wichtige Personen geformt hat: alten Musikmeister und Pater Jakobus.